

담양군, '유기농 실천·논 타작물 재배 다짐대회' 개최

친환경 유기농 메카 도약 쌀 생산 안정화 기여

담양군은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친환경농업인, 논 타작물 재배농가,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기농 실천 및 논 타작물 재배 성공 다짐대회'를 열었다.

이번 다짐대회는 농업인 스스로 유기농 실천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쌀 수급의 안정과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해 유기농 실천 및 논 타작물 재배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 친환경농업 관련 대표와 관련 공무원의 결의문 낭독과

올해 친환경 농업 정책의 방향,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담양군은 올해 친환경 인증목표를 1,032ha로 정하고 유기농 중심의 인증단계 상향 및 인증 품목의 다변화를 위해 약 3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농업농촌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회생 설립을 통한 소통하는 농정으로 담양시 강한 농업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정 담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에 친환경 농업인이 솔선수범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지난해 벼를 재배했던 논지에 콩 등 다른 작물을 심으면 ha당 조사료 430만 원, 일반·꽃거름작물 340만 원, 두류 225만 원, 휴경 2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6월 2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군은 올해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한 군민에게 ha당 1백만 원을 추가 지원해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강진군, '군민이 만들어 가는 올해의 관광도시' 실천대회



강진군이 지난 18일 '군민이 만들어 가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관광개발에 나섰다.

강진국민체육센터 제2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음식·숙박·여행·택시·버스 등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

특히 군민 실천 결의문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스스로를 경계하여 바르게 하고자 했던 네 가지 가르침인 '사의제 사·모·언·동의 가르침'을 담았다.

특별 강연에 이종원 여행작가와 배우 김수미 씨가 나섰다. '우리 지역의 숨은 관광자원'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이종원 작가는 외부인의 시선에서 본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새롭게 풀어내 그간 우리에게 익숙함 속에 가려져 몰랐던 이름다음과 그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최근 '수미네반찬'을 통해 '국민 손맛'으로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배우 김수미 씨는 집밥과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외지인들과 음식으로 소통하고 진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강진=김영일 기자

화순군, 작품국화 재배교실 개강

교육생 작품 국화 향연에 전시...군민 참여형 축제 준비



화순군 작품국화 재배교실이 지난 16일 개강했다. 4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하는 작품국화 재배교실은 오는 11월까지

총 14회 열린다. 국화 분재와 북조국 등 관상용 작품국화에 관한 이론을 교육하고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이 만든 작품들은 심사를 거쳐 올해 열리는 국화향연 '분재 전시관'에 전시한다.

군은 이번 교육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모종을 재배해 농업기술센터 작물 육묘장에서 관리하고 교육생에게 250여 주를 분양했다.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재배공간도 확장했다.

또한, 좋은 작품 생산을 위해 교육 교재와 유인 철사 등 국화 재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재배교실 운영으로 교육생들이 양질의 작품을 만들어 국화 향연에 전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여수시, 여수산단 교통대책 T/F팀 '본격 운영'

시·여수경찰서·유관기관 등 관계자 22명으로 구성

여수시가 여수 국가산단 신중설에 따른 교통 혼잡에 대비하고자 교통대책 T/F팀을 본격 운영한다. 시는 지난 19일 여수경찰서, 유관기관, 투자·시공사 등 관계자 22명으로 교통대책 T/F팀을 꾸리고 시청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교통대책 T/F팀장인 성동범 기획경제국장이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는 "CS칼텍스와 IG화학이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5조 3천억 규모의

공장 신중설을 추진·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또 "공장 신중설이 본격화하는 올해 하반기부터 건설근로자가 매일 5천 명 이상 투입되고 2020년에는 투입 인원이 1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 된다"고 설명했다.

T/F팀은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대란이 극심할 것으로 보고 예상 근로자 수에 따라 혼잡단계(5천 명~1만 명)와 극심단계(1만 명 이상)로 나누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중교통 이용 유도, 주차 단속 강화, 주요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임시주차장 개설, 셔틀버스 운행, 차량 10부제 운영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성동범 기획경제국장은 "T/F팀 운영 목적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체계 구축에 있다"면서 "교통 대책 마련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공장 신중설에 따른 공업용수 확보와 폐수처리시설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근로자 숙소 마련, 전일 인센티브 등 인 구유입 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확정



영암군은 지난 18일 남산실에서 손점식 부군수 주재로 2019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5개년간의 농업농촌 식품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인 2019-2023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안)을 확정했다.

금회 확정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의 영암군 농정의 전반적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영암군 농업 및 식품산업분야, 농촌경제 활성화 분야, 농촌지역개발 분야, 삶의 질 향상 분야, 지역역량 강화 분야 등 5개 분야에 49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이 상세히 담겨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본 계획을 토대로 농정을 펼쳐 농업이 곧 생명이라는 신념으로 농업농촌이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농업발전이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장흥군, '어서와, 장흥에' 관광안내도 배부

장흥군은 봄 여행 주간을 맞아 '어서와, 장흥에'란 이름으로 관광안내도를 만들어 배부한다고 19일 밝혔다.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에 맞춰 제작된 이번 안내도는 장흥군 핵심 관광지의 9개 축제를 수록했다.

장흥의 풍광 및 특산품을 총망라한 9경 9미 9품도 함께 실었다. 휴대하기 편리하게 접지 형태로 제작된 안내도는 관내 관광지 및 관광안내소에 비치해 관광객에게 무료로 배부된다.

장흥군은 민선7기 돌입 후 유동

인구 30만명 달성을 위해 관광중합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안중근 의사 사당 관광자원화사업, 탐진강관광명소화 사업 등 다양한 관광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관광안내도가 필요한 단체나 개인은 관광진흥팀(☎061-860-0785)으로 문의하면 무료 제공한다.

장흥=송호빈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